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숙제장의 사용법

수능 국어 성적은 단순히 많은 문제를 풀다고 오르지 않습니다. 머리 아픈 '생각'의 양이 여러분의 성적과 비례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생각'의 양을 완벽하게 채운 학생들은 매년 극소수이지만, 그 학생들은 대부분 1등급을 받았거나 유익미한 성적 향상을 이루어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절 믿고, 제가 시키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국어 영역은 여러분의 효자 과목이 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피램의 파이널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6일 간의 공부를 이끌어드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일 효과적인 국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파트들을 조화롭게 배치해 두었습니다. 주어진 하루 분량을 잘 소화해내는 것을 목표로 공부해 보세요. 각 파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어장 학습 : 여러 시험에서 추출한 단어들을 모아 놓은 자료입니다. 파이널 기간 동안 열심히 학습하신다면, 수능날 어휘력이 부족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한자어의 경우 사용된 한자의 뜻과 음도 적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자 자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특정한 뜻과 음이 반복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처음 보는 어휘에 대한 감을 키우시라는 뜻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복기 : 실전 모의고사는 그냥 풀고 버리는 용도가 아닙니다. 80분 동안 했던 생각들, 위기의 순간들 등을 정리해 보고, 이에 대해 피드백하면서 실전 모의고사를 완벽하게 이용해 보세요.

문장 읽기 연습 : Day 2부터 Day 6까지, 매일 국어 공부를 시작하며 머리를 깨우기 위한 파트입니다. 주어진 문장 / 문단을 정확하게 읽고, 해설지의 생각과 비교하며 본격적인 공부를 준비해 보세요. 문장 독해 실력이 좋아지는 것은 덤입니다.

평가원 기출 학습 : 그동안 얼마나 기출을 봤는지에 상관없이, 수능의 그날까지 평가원 기출문제 학습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른쪽에 제시된 '기출분석 방법'에 따라 꼼꼼하게 학습해 주세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파이널 기간 동안 8개년 전 지문과 그 이전 기출 중 주요 지문을 2번 이상 학습할 수 있습니다.

낯선 지문 학습 : LEET언어이해와 교육청 기출 및 기타 여러 군데에서 추출한 낯선 지문을 가지고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평가원 기출 공부를 하듯이 최대한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걸 권해요.

EBS 독서 배경지식 정리 :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EBS 독서 지문의 내용을 배경지식화하는 것은 수능날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지문만, 말 그대로 '독서'하듯이 읽어 보고 익숙해 지세요. 외우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테니, 지문을 읽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지문 위주로 지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EBS 현대시 독해 연습 (7주차부터 제공) : EBS 문학과는 내용 암기 위주가 아닌 '문학 독해 연습' 위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램의 파이널 수업에서는 수능 때마다 가장 변별력 있게 출제되는 파트인 현대시 파트를 대비하기 위해, EBS 현대시 지문의 독해 연습을 도와 드립니다. 시를 먼저 읽고 이해해 본 다음, 해설을 통해 독해 과정을 교정하신다면 수능날 그 어떤 현대시가 나와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채롭고 체계적인 자료들을 통해, 파이널 기간 국어 공부를 알차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출분석 방법

1. 시간을 재고 풀어본다.
(추천[독서] : 2017학년도 이전 - 7분 / 2017학년도 이후 - 11분)
(추천[문학] : 문제 수 × 1.4분)
2. 채점을 하기 전에 '시간 제한 없이' 모든 문장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3. 문제를 다시 푼다. 이때 모든 선지에 대해 이 선지가 왜 맞는지, 틀린지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4.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풀어본다.
5. 해설지를 통해 자신의 사고과정과 해설지의 설명을 비교한다. 이때 해설지보다 본인의 사고가 더 깊다는 생각이 들면 좋다.
6. 해설지를 덮은 뒤,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 모든 풀이 과정을 설명해본다.
7. 이번 공부에서 배운 점을 정리한다.
8. 다음 지문을 학습할 때 그 내용들을 의식하며 공부한다.

해당 숙제장은 다음 수업 시간에 가져 오셔서, 숙제장 조교님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숙제장 조교님이 수업 시간 동안 완벽하게 피드백해드릴 것입니다. 수업 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경로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피램 (김민재) 연락처 : 010-****-**** / 조교님 연락처 : 수업시간에 공지
피램의 국어공작소 카페 : <https://cafe.naver.com/piramgukeo>



카페에 가입하신 뒤 숙제장 사진을 찍어 등업게시판에 올려 주세요.

DAY 1

단어장 학습

아래의 어휘들은 역대 수능 및 모의평가에서 각주나 추가 설명 없이 제시되었던 어휘들입니다. 처음 봤거나 무슨 뜻인지 감이 오지 않는 단어들에 체크해보도록 합니다. 뒤 쪽에는 자세한 뜻과 예문이 실려 있습니다. 치사하게 눈알 굴리지 말고, 본인의 진짜 어휘력을 테스트해보겠다는 의의를 가지고 진행해보도록 합니다.

절감하다	추진하다	진흥	고조되다	부진하다
납기	내수	폐해	인습	고루하다
상보적	몽매하다	기예	참람하다	허적하다
본연하다	회한	고매하다	나타	호혜적
경시하다	간과하다	물각하다	기인하다	가변적
고금	형세	연원	장엄하다	응험
청허하다	입적하다	초탈하다	전일하다	회의적
우원하다	유리하다	상아탑	찬연하다	실증
영달	위무	회오	대계	개탄하다
교시적	본원	묘파	광의	협의

각 어휘들의 자세한 뜻과 예문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던 게 정말로 알고 있던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절감하다[切 끊을 절 / 感 느낄 감]

뜻: 절실히 느끼다

예문: 필요성을 절감하다.

추진하다[推 밀 추 / 進 나아갈 진]

뜻: 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다.

예문: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다.

진흥 [振 떨칠 진 / 興 일 흥]

뜻: 떨쳐 일어남. 또는 떨쳐 일으킴.

예문: 학술 진흥에 힘을 쓰다

고조되다

뜻: 고요하고 아늑하다.

예문: 산속의 암자가 더할 나위 없이 고조되다

부진하다 [不 아닐 부 / 振 떨칠 진]

뜻: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기세나 힘 따위가 활발하지 아니하다.

예문: 학업이 부진한 아동.

납기 [納 들일 납 / 期 기약할 기]

뜻: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는 시기나 기한.

예문: 납기를 놓치다.

내수 [內 안 내 / 需 쓰일 수]

뜻: 국내에서의 수요

예문: 내수 상품.

폐해 [弊 폐단 폐 / 害 해할 해]

뜻: 폐단으로 생기는 해

예문: 국가적 사업을 가로막는 단체 행동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인습 [因 인할 인 / 習 익힐 습]

뜻: 이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습관.

예문: 그녀의 집안은 고루한 인습에 젖어 있다.

고루하다 [固 굳을 고 / 陋 더러울 루]

뜻: 낡은 관념이나 습관에 젖어 고집이 세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예문: 부끄럽다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면 평생 고루하고 무식한 지경에 갇혀 있게 될 것이다.

상보적 [相 서로 상 / 補 기울 보 / 的 과녁 적]

뜻: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관계에 있는.

예문: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 대해 상보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몽매하다 [蒙 어두울 몽 / 昧 어두울 매]

뜻: 어리석고 사리에 어둡다.

예문: 몽매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에 [技 재주 기 / 藝 재주 예]

뜻: '기술'과 '예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예문: 남사당패는 각종 기예를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참람하다 [僣 주제넘을 참 / 濫 넘칠 랴]

뜻: 분수에 넘쳐 너무 지나치다.

예문: 그는 나이가 어린 국왕이 등극하자 참람한 역심을 품었다

허적하다 [虛 빌 허 / 寂 고요할 적]

뜻: 텅 비어 적적하다.

예문: 다만 동짓달 저녁의 빈 하늘만 허적하게 걸려 있을 뿐이었다.

본연하다 [本 근본 본 / 然 그럴 연]

뜻: 어떤 특성이나 성질 따위가 본디부터 그러하다.

예문: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다가 마지막에 흠 한줌에 묻히는 것이 인생의 본연한 모습일까?

회한 [悔 뉘우칠 회 / 恨 한 한]

뜻: 뉘우치고 한탄함.

예문: 회한이 서린 목소리.

고매하다 [高 높을 고 / 邁 멀리 갈 매]

뜻: 인격이나 품성, 학식, 재질 따위가 높고 빼어나다.

예문: 고매한 인격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타 [懶 게으를 라 / 惰 게으를 타]

뜻: 행동, 성격 따위가 느리고 게으름.

예문: 사람은 편할수록 나타에 빠져서는 안 된다

호혜적 [互 서로 호 / 惠 은혜 혜 / 的 과녁 적]

뜻: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것.

예문: 호혜적인 조치

경시하다 [輕 가벼울 경 / 視 볼 시]

뜻: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기다.

예문: 나는 그 선수를 신출내기라고 경시할 수 없었다.

간과하다 [看 볼 간 / 過 지나갈 과]

뜻: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

예문: 나는 그가 따라 주는 술을 마시면서도 그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몰각하다 [沒 빠질 몰 / 覺 깨달을 각]

뜻: 깨달아 인식하지 못하다.

예문: 수정이는 형규와의 영화 약속을 몰각하고 있다가 뒤늦게 외출 채비를 했다.

몰각하다 [沒 빠질 몰 / 却 물리칠 각]

뜻: 아주 없애버리다.

예문: 아래로는 칠 남매의 자식과 많은 하인을 거느리는 지주 맥 주부로서, 정착 자기 자신은 완전히 몰각하고 대가족을 위한 희생으로만 살아왔었다.

기인하다 [起 일어날 기 / 因 인할 인]

뜻: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두다.

예문: 그의 병은 전적으로 과로에 기인한다.

가변적 [可 옳을 가 / 變 변할 변 / 的 과녁 적]

뜻: 바꿀 수 있거나 바뀔 수 있는 것

예문: 최근의 정국은 자못 가변적이다.

고금 [古 옛 고 / 今 이제 금]

뜻: 예전과 지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

예문: 과연 고금에 드문 명궁이다.

형세 [形 모양 형 / 勢 형세 세]

뜻: 일이 되어 가는 형편

예문: 형세가 불리하다.

연원 [淵 못 연 / 源 근원 연]

뜻: 사물의 근원

예문: 병의 연원은 훨씬 깊은 곳에 있었다

장엄하다 [莊 씩씩할 장 / 嚴 엄할 엄]

뜻: 씩씩하고 웅장하며 위엄 있고 엄숙하다

예문: 태양이 산 너머 광활한 벌판에 불이라도 지른 것처럼 서쪽 하늘이 온통 화려하고 장엄하게 타올랐다.

응험 [應 응할 응 / 驗 시험 험]

뜻: 드러난 징조가 맞음. 또는 그 징조

예문: 지금 가뭄을 만나 어느 신이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전혀 응험을 보지 못하였다

청허하다 [淸 맑을 청 / 虛 빌 헤]

뜻: 잡된 생각이 없어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

예문: 표현 양상은 시각과 청각 등의 대비와 대구를 통해서, 청허한 맛을 살렸다

입적하다 [入 들 입 / 寂 고요할 적]

뜻: 승려가 죽다.

예문: 그 스님은 나이 74세, 법랍 36년으로 입적하였다.

입적하다 [入 들 입 / 籍 문서 적]

뜻: 호적법에서, 호적에 올리다.

예문: 양자를 호적에 입적하다.

초탈하다 [超 뛰어넘을 초 / 脫 벗을 탈]

뜻: 세속적인 것이나 일반적인 한계를 벗어나다.

예문: 그는 모든 것을 초탈한 사람처럼 대답했다

전일하다 [全 온전할 전 / 一 하나 일]

뜻: 완전하거나 하나의 전체로서 통일을 이루는 데가 있다.

예문: 그 생활은 도시의 타락한 자들로는 도저히 바랄 수도 없는 인간으로의 건전함과 전일함을 지니고 있다고도 말한다

회의적 [懷 품을 회 / 疑 의심할 의 / 的 과녁 적]

뜻: 어떤 일에 의심을 품는 것.

예문: 그런 늙은이들도 자기네가 가꾼 곡식을 제대로 거두게 될지에 대해서 모두들 회의적이었다.

우원하다 [迂 에둘 우 / 遠 멀 원]

뜻: 방법, 태도, 생활 따위가 현실과 거리가 멀다.

예문: 더욱이 뛰어나지도 못한 무리들이 보지도 못한 산을 그려서 정신을 전하려 하니 우원하다.

유리하다 [流 흐를 유 / 離 떠날 리]

뜻: 일정한 집과 직업이 없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

예문: 내가 망명객이 되어 사방으로 유리하는 몸이 될 줄 몰랐다.

상아탑 [象 코끼리 상 / 牙 어금니 아 / 塔 탑 탑]

뜻: 속세를 떠나 오로지 학문이나 예술에만 잠기는 경지. 프랑스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생트브브가 낭만파 시인 비니의 태도를 비평하며 쓴 데서 유래한다.

예문: 학문의 상아탑 속에 홀로 들어박혀서 책밖에 모르는 대학교수나 학자는 결코 아니었다.

찬연하다 [燦 빛날 찬 / 然 그럴 연]

뜻: 빛 따위가 눈부시게 밝다. / 어떤 일이나 사물이 영광스럽고 훌륭하다.

예문: 형이 철벽이며 허리를 굽작덜 때마다 아로롱다로롱 산란하는 물방울이 달빛을 받아 더없이 찬연하다.

실증 [實 열매 실 / 證 증거 증]

뜻: 확실한 증거 / 실제로 증명함. 또는 그런 사실

예문: 마을 주민들은 도청에서 발표한 생태계 연구에 대한 실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달 [榮 영화 영 / 達 통달할 달]

뜻: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됨

예문: 부귀와 영달을 누리다.

위무 [威 위엄 위 / 武 호반 무]

뜻: 위세와 무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

예문: 부귀도 대장부(大丈夫)의 뜻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貧賤)도 그의 뜻을 움직이지 못하며 위무도 그의 뜻을 굴복시키지 못한다.

회오 [梅 뉘우칠 회 / 悟 깨달을 오]

뜻: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음

예문: 불효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회오의 눈물을 흘렸다

대계 [大 클 대 / 計 셀 계]

뜻: 큰 계획

예문: 국가의 대계.

개탄하다 [慨 슬퍼할 개 / 歎 탄식할 탄]

뜻: 분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겨 한탄하다

예문: 도덕성의 쇠퇴를 개탄하다.

교시적 [敎 가르칠 교 / 示 보일 시 / 的 과녁 적]

뜻: 가르쳐서 보이는. 또는 그런 것.

예문: 그렇다고 해서 교시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금속성이 느껴지는 논리적 비판을 펴는 건 더더욱 아니다

본원 [本 근본 본 / 源 근원 원]

뜻: 사물의 주장이 되는 근원.

예문: 그런 졸렬한 생각을 해 내는 그 본원의 바탕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묘파 [描 그릴 묘 / 破 깨뜨릴 파]

뜻: 남김없이 밝히어 그려 냄.

예문: 이 논문의 아동 심리에 대한 묘파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광의 [廣 넓은 광 / 義 옳을 의]

뜻: 어떤 말의 개념을 정의할 때에, 넓은 의미.

예문: 동물들의 의사소통 수단도 광의의 언어이다

협의 [狹 좁을 협 / 義 옳을 의]

뜻: 어떤 말의 개념을 정의할 때에, 좁은 의미

예문: 그것이 물론 넓은 뜻에서의 정치적인 활동의 범주에 들겠습니다만, 정권욕과 상관되는 협의의 정치적 움직임과는 엄격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DAY 1

한수 모의고사 1회 복기

① 점수 및 틀린 문항

② 위기의 순간들 복기 및 해결책 고민

(ex. 고전시가 해석이 안 되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어차피 답은 쉽게 나올 것이므로, 최대한 현대어로 바꿔보고 안 되면 넘어가자.)

③ 내가 생각하는 핵심 지문 & 이유 + 유사 기출문제

④ 총평 및 반성할 점

DAY 1

평가원 기출 학습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1.06

(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관직을 ㉠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시험 과정에서 ㉡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다.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천 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 준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

(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과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고임무는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 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 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중희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있었다.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낳았다. 또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 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다.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다.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16. (가)와 (나)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특정 제도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면서 특정 제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특정 제도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나)는 특정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공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17.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
- ②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
- ③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④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
- ⑤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

18. (나)를 참고할 때, ㉠과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되어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약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②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태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③ 과거제로 선발한 관리들은 세습 엘리트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강해서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④ 과거제를 통해 배출된 관리들이 출세 지향적이어서 장기적 안목보다는 근시안적인 결과에 치중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⑤ 과거제가 낳은 능력주의적 태도로 인해 관리들이 승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만을 내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 (가)와 (나)를 참고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지만, ㉡은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 ② ㉠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 ㉡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 ③ ㉠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은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
- ④ ㉠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은 관리 선발 시 됴됨이 검증의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
- ⑤ ㉠은 관리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했지만, ㉡은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

20. <보기>는 과거제에 대한 조선 시대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갑**: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라 차별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으면서 불만이 많이 해소되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
- **을**: 과거제를 통해 조선 사회에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 좋다. 그런데 많은 선비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 **병**: 요즘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나오는 책들을 보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서 학습의 깊이가 없으니 문제이다. 그래도 과거제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① ‘갑’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② ‘을’이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③ ‘을’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 내용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④ ‘병’이 과거제로 인해 심화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형식적인 학습을 유발한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⑤ ‘병’이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겠군.

21.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그가 열쇠를 방 안에 두고 문을 잠가 버렸다.
- ② ㉡: 우리는 그 당시의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렸다.
- ③ ㉢: 협곡 사이에 구름다리가 멋지게 걸쳐 있었다.
- ④ ㉠: 사소한 일에만 매달리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
- ⑤ ㉢: 형편이 어려울수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09

최 노인 :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 놓은 화초며 고추 모가 도무지 자라질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보니까 고추 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저 멧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 말세야 말세!

이때 경제 제복을 차려 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신다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웃는다.

경제 : 원 아버지두……

최 노인 : 이놈아 뭐가 우스워?

경제 :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 밭을 넘어다보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 노인 : ㉡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경제 : 옛날 일이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 (옹변 연사의 흉을 내며) 역사는 강처럼 쉴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쌍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에헴!

(중략)

경수 : 여보 영감님! 여긴 종로 한복판입니다. 게다가 가게와 살림집이 붙었는데 그래 겨우 이백오십만 환이라구요? ㉣ 그런 당치도 않은 거짓말은 공동묘지에서나 하시오.

복덕방 : 뭐 뭐요? 공동묘지에서라고? 예끼 버릇없는 놈 같은 나라구!

경수 : 아니 이 영감님아……

복덕방 : 그래 이놈아 너는 애비도 에미도 없는 놈이기에 나이 먹은 늙은이더러 공동묘지에 가라구? 이 천하에.

최 노인 : 여보 김 첩지. 젊은 애들이 말버릇이 나빠서 그런 걸 가지고 탓할 게 뭐요?

복덕방 : 그래 내가 집 거간이나 놓고 다니니까 뭐 사고무친한 외도토리 줄 아느냐? 이놈아! 나도 장성 같은 아들에다 딸이 육 남매여!

경수 : 아니 제가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 : 넌 잠자코 있어! 용서하시우. 요즘 젊은 놈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까요…… 게다가 술을 마셨다우.

복덕방 : 음 이놈이 한낮부터 술 처먹고 어른에게 행패구나! 이놈아!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최 노인 : 김 첩지! 글썄 진정하시라니까…… 내가 대신 이렇게 사죄하겠소 원!

복덕방 : 그러고 이백오십만 환이 터무니없는 값이라고? 이놈아 누군 돈이 바람 맞은 대추알이라던? 응? 그것도 잘 생각해서야! 음! 이런 분한 일이 있나!

최 노인 : 글썄 참으시고 이리 앉으세요.

복덕방 : 난 그만 가 보겠소이다. 이런 일도 기분 문제니까요!

다른 사람 몰라서 공동묘지로 보내구려! 에잇.

최 노인 : 아 ㉤ 김 첩지! 김 선생! (하며 뒤를 쫓아 나간다.)

경수 : 제길 무슨 놈의 영감이 저래?

어머니 : 네가 잘못이지 뭐니……

경수 : 집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 최 노인 세근거리면서 등장하자 이 말을 듣고는 성을 더 낸다.

최 노인 : 이놈아! ㉥ 누가 이 집을 판다고 했어? 응?

경수 : 아니 그럼 이 집을 파시는 게 아니면 뭣 하러 복덕방은……

최 노인 : 저런 쓸개 빠진 녀석 봤나! 아니 내가 뭣 때문에 이 집을 팔아? 응? 옳아 네놈 취직 자본을 대기 위해서? 응?

어머니 : 아니 그럼 이백오십만 환이란 무슨 애길니까?

최 노인 : 네 따위 놈을 위해서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야만 속이 시원하겠니? 전세로 육 개월만 내놓겠다는 거야!

경수 : 예? 전세라고요?

㉦ (어머니와 경수는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

최 노인 : 왜 아주 안 파는 게 양에 안 차지? 이놈아! 이 애비가 집도 절도 없는 거지가 되어서 죽는 꼴이 그렇게도 보고프나?

경수 : (당황하며) 아버지 아니예요! 저는……

최 노인 : 아니면 꺾질이나?

어머니 : ㉧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뭣 하시게요?

최 노인 : 글썄 아까 어떤 친구 얘기가 요즘 그 실내에서 하는 그 뭐드라 ‘샤플이뽀’이라든가……

경운 : ‘샤플뽀오드’ 말씀이예요?

최 노인 : 그래 ‘샤플뽀오드’ 말이다! 그건 차리는 데 돈도 안 들고 수입이 괜찮다고 하면서 4가에 적당한 집이 있다기에 그걸 해 볼까 하고 이 집을 보였지. 그래 얘기가 거기 익어 가는 판인데 글썄 다 되어 간 음식에 코 빠치기로 저 녀석이……

어머니 : 아니 그럼 전세로 이백오십만 환이란 말인가요?

최 노인 : 그렇지! 저 가게만 해도 백만 환은 받을 수 있어!

어머니 : 그런 걸 가지고 나는 괜히……

최 노인 : 뭐가 괜히야?

경운 : ㉨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팔으실 줄만 알았어요.

최 노인 : 흥! 너희들은 모두 한속이 되어서 어찌든지 내 일을 안 되게 하고 이 집을 날려 버릴 궁리들만 하고 있구나! 이 천하에 못된 것들! (하며 불쑥 일어선다.)

어머니 :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다만……

최 노인 : 듣기 싫어! (화초밭으로 나오며) 이 집안에서는 되는 거 라곤 하나도 없어! 혼한 햇볕도 안 드는 집이 뭣이 된단 말이야! 뭣이 돼! (하며 화초밭을 함부로 작신작신 짓밟고 뽀아 헤친다.)

어머니 : ㉩ (맨발로 뛰어내리며) 여보! 이게 무슨 짓이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꾼 것들을…… 원…… 당신도……

최 노인 : 내가 정성을 안 들인 게 뭐가 있어…… 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지만 안 되지 않아! 하나도 씨도 말야!

- 차범석, 「불모지」 -

* 샤플뽀오드(shuffleboard): 오락의 한 종류.

23. 밑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장면의 전환을 통해 각 인물의 내면이 부각되고 있다.
- ③ 인물들의 복장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의 등퇴장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실제 지명의 노출을 통해 극중 상황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최 노인’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② ㉡: ‘경제’의 말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호칭을 달리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최 노인’의 노력이 드러나 있다.
- ④ ㉡: 두 인물이 ‘경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동시에 확인하고 있다.
- ⑤ ㉣: ‘어머니’의 다급한 심리를 행동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25. <보기>와 ㉠~㉣를 관련지어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발견’이란 인물이 극의 전개 과정에서 사건의 숨겨진 측면을 알아차리는 계기를 드러내는 기법이다. ‘발견’의 대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몰랐던 사실이나 새로운 가치, 인물의 다른 면 등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기도 하고 인물들의 갈등 양상이 변모되기도 한다.

- ① ‘경제’는 ㉠을 통해 ‘최 노인’이 예전과 달라진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에게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드러내는군.
- ② ‘복덕방’은 ㉡를 통해 ‘경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과의 흥정을 중지하게 되는군.
- ③ ‘경수’는 ㉢를 통해 ‘최 노인’이 집을 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는군.
- ④ ‘최 노인’은 ㉣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어머니’가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군.
- ⑤ ‘최 노인’은 ㉣를 통해 집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경운’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군.

26. 화초밭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가족들의 희망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 ② 중심인물이 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장소이다.
- ③ 두 인물의 상반된 행동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장소이다.
- ④ 중심인물이 현재의 고통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자책하는 장소이다.
- ⑤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여 허망해하는 중심인물의 감정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09

- (가)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못쳐세라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님 이스리
밤둥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괴 벗인가 호노라 <1수>
- (나) 셋째래 기나 크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수간모옥(數間茅屋)*을 죽은 줄 웃지 마라
어즈버 만산 나월(滿山蘿月)*이 다 니 거신가 호노라 <8수>
- (다) 한식(寒食) 비 온 밤에 봄빛치 다 퍼졌다
무정(無情)흔 화류(花柳)도 때를 아라 피엿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노고 <17수>
- (라) 어지밤 비 온 후(後)에 석류(石榴)꽃지 다 피엿다
부용 당반(芙蓉塘畔)*에 수정렴(水晶簾)을 거더 두고
늘 향한 김흔 시름을 못내 푸러 호노라 <18수>
- (마) 창(窓)밧긔 위석버석 님이신가 이러 보니
혜란 혜경(蕙蘭蹊徑)*에 낙엽(落葉)은 무스 일고
어즈버 유한흔 간장(肝腸)이 다 끈칠까 호노라 <19수>
- 신희, 「방옹시여(放翁詩餘)」-
- * 수간모옥: 방이 몇 칸 되지 않는 작은 초가.
* 만산 나월: 산에 가득 자란 덩굴 풀에 비친 달.
* 부용 당반: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가.
* 혜란 혜경: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

16.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라)에서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심리적 변화를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⑤ (마)에서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들을 점층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17. <보기>의 ㉠, ㉡를 고려하여 (가)~(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방옹시여」는 선조(宣祖) 사후에 정계에서 밀려난 신희이 은거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한 시조 작품을 모아 놓은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30수는 몇 개의 작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궁심을 표현한 작품군, ㉡ '님'으로 표상되는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표현한 작품군 등이 있다.

- ① (가)의 '눈'은 ㉠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의 은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 주는 단서이다.
- ② (나)의 '수간모옥'은 ㉠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의 답답한 심정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 ③ (나)의 '만산 나월'은 ㉡와 연관된 시어로, '님'이 부재한 상황을 절감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④ (다)의 '봄빛'은 ㉡와 연관된 시어로, '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촉발하는 계기이다.
- ⑤ (라)의 '부용 당반'은 ㉡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다.

18. (마)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벽사창(碧紗窓)이 어른어른커늘 님만 너저 풀썩 너러나 쭉박 나서 보니
님은 아니오 명월(明月)이 만정(滿庭)헌디 벽오동(碧梧桐)저즌 님히 봉황(鳳凰)이 느려안자 긴 부리를 휘여다가 두
느래에 너허 두고 슬금슬금 깃 다듬는 그림자 | 로다
모쳐로 밤일식만정 행여 낮이런들 님 우일 변혀려라
- 작자 미상 -

- ① (마)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에서는 모두 감각적 자극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군.
- ② (마)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에서는 모두 창밖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군.
- ③ (마)의 중장과 <보기>의 중장에서는 모두 화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킨 대상이 확인되고 있군.
- ④ (마)의 중장에서는 착각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묘사가, <보기>의 중장에서는 착각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비판이 제시되고 있군.
- ⑤ (마)의 중장에서는 화자의 내면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고, <보기>의 중장에서는 타인의 평가와 조소를 의식하고 있군.

DAY 1

EBS 독서 배경지식 정리

2024 개념#1 수특 p9	실학의 등장으로 인한 조선 시대 자연관의 변화
-----------------------	------------------------------

이 글은 조선 시대 자연관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자학과 실학에서의 자연 인식을 설명하고 있다. 주자학에서의 자연의 의미를 격물치지론을 바탕으로 설명한 후 조선 후기 실학의 등장으로 인해 자연이 도리나 인간 사회의 운영 원리로부터 독립하여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연계 기출	
평가원	1994.11, 2010.09, 2010.11, 2013.09, 2018.06, 2021.11
LEET	2013(13~15)

(저문)

기출 속 배경지식

동양 철학자의 길에 대한 생각
유학자들에게 길은 백성을 통치하는 덕, 즉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행정 통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동양식, 전제 왕권 사회에서의 길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길가에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관방(關防)과 높은 문루를 세워야 하고, 도로 표지를 만들며 정자목(亭子木)도 심어야 했다. 그러나 도가(道家)들의 생각으로는 길이란 형식적이고 웅장할 필요가 없다. 좋은 길이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찾아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하며 자연 법칙에 따라 굴곡이 있는 길이어야 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생각이 적절히 조화된 것이 동양 사회의 길이다.

1994 수능

동양의 '천(天)' 개념

동양에서 '천(天)'은 그 함의가 넓다. 모든 존재의 근거가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표본이었고,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생존을 영위하고 그 존재 가치와 의의를 실현하는 데도 그것의 이치와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동양에서는 인간이 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삶의 길이 달리 설정되었을 만큼 천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였다. 천은 자연현상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으로 여겨졌다. 농경을 주로 하는 문화적 특성상 자연현상과 기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시된 만큼 천의 표면적인 모습 외에 작용 면에서 천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짙었다. 그래서 천은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 '자연천(自然天)'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2010학년도 9월 평가원

'천(天)' 개념의 변화

천명 의식의 변화와 맞물려 천 개념은 복합적으로 수용되었다. 상제로서의 천 개념이 개방되면서 주재적 측면이 도덕적 측면으로 수용되었고, '의리천' 개념은 더욱 심화되어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천을 인간 내면으로 끌어들이 인간 본성을 자연한 것이자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천이 도덕 및 인간 본성과 결부됨에 따라 인간 내면에 있는 천으로서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 도덕을 실현함은 물론,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내면화된 천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어 장치 역할을 하는 양심의 근거로도 수용되어 천의 도덕적 의미는 더욱 강조되었다. 천명 의식의 변화와 확장된 천 개념의 결합에 따라 천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진 존재로서 받아들여졌고,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어 인간 삶의 중요한 근거로서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2010학년도 9월 평가원

성리학의 지(知)와 행(行)

조선 성리학자들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知)와 행(行)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특히 도덕적 실천과 결부하여 지와 행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기본적인 입장은 '지행병진(知行並進)'이었다. 그들은 지와 행이 서로 선후(先後)가 되어 돕고 의지하면서 번갈아 앞으로 나아가는 '상자호진(相資互進)'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만물의 이치가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고 도덕적 수양을 통해 그 이치를 찾고자 하였다.

2010학년도 수능

최한기의 지행론

천명 의식의 변화와 맞물려 천 개념은 복합적으로 수용되었다. 상제로서의 천 개념이 개방되면서 주재적 측면이 도덕적 측면으로 수용되었고, '의리천' 개념은 더욱 심화되어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천을 인간 내면으로 끌어들이어 인간 본성을 자연한 것이자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천이 도덕 및 인간 본성과 결부됨에 따라 인간 내면에 있는 천으로서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 도덕을 실현함은 물론,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내면화된 천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어 장치 역할을 하는 양심의 근거로도 수용되어 천의 도덕적 의미는 더욱 강조되었다. 천명 의식의 변화와 확장된 천 개념의 결합에 따라 천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진 존재로서 받아들여졌고,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어 인간 삶의 중요한 근거로서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2010학년도 수능

'예'의 기능

공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는 주나라 봉건제가 무너지고 제후국들이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전쟁을 일삼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자는 예(禮)를 제안하였다. 예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그 사회에 맞게 규범화한 것으로 단순히 신분적 차이를 드러내거나 행동을 타율적으로 규제하는 억압 장치는 아니었다. 예는 개인의 윤리 규범이면서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제도였으며,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사회적 장치였다.

2013학년도 9월 평가원

공자의 이상적인 정치와 인간상

공자는 예에 기반을 둔 정치는 정명(正名)에서 시작한다고 하며, 정명을 실현할 주체로서 군자를 제시하였다. 정명이란 '이름을 바로잡는 다'라는 뜻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주는 군주다운 덕성을 갖추고 그에 맞는 예를 실천해야 하며, 군주뿐만 아니라 신하, 부모 자식도 그러해야 한다. 만일 군주가 예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과 형벌에 기대어 정치를 한다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기 위해 법을 지킬 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공자는 보았다. 유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성인(聖人)이다. 공자도 자신을 성인이라고 자처하지 않았다. 성인은 도덕적 수양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완성한 인격자를 가리키는데 언제 어디서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군자는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공자는 정치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의 지속적인 도덕적 수양을 통해 혼란스러운 당시의 세상을 이상적인 사회로 이끌고자 하였다.

2013학년도 9월 평가원

유학의 수기치인

유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유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유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제론을 전개 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유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호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유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 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치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북학파와 청의 현실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 중화 개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1학년도 수능

이익의 서학 수용

18세기의 이익은 서학 지식 자체를 『성호사설』의 표제어로 삼았고, 기존의 학성을 정당화하거나 배재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하였다.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하였다. 또한 서학의 수학을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2021학년도 수능

연계 가능 토끼

2024 인예1	주자학의 태도	☆
주자학에서는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통일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운영 원리인 '도리(道理)'와 자연 법칙인 '물리(物理)'는 다르게 파악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관점은 군신간의 의리를 비롯한 삼강오륜 등 인간사회의 운영원리를 '자연'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주자학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조선으로 이어졌다.		
도리: 인간 사회의 운영 원리 물리: 자연 법칙		
1) 성리학의 역사 성리학의 집대성자 주희는 유교의 텍스트들 중에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사서(四書)를 경전화시킴으로써 그 지위를 격상시켰다. 사서의 정립을 통하여 공자·증자·자사·맹자라는 유학 도통의 계보를 역사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희는 사서에 주(註)를 달았는데 이는 나중에 성리학자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성리학의 중심 텍스트를 선정하고 거기에 새로운 해석학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유학으로 거듭났다.		
2) 성리학의 법칙과 인간의 관계 성리학의 특징은 공자·맹자의 선진 유학을 형이상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일분수(理一分殊)·천도유행(天道流行)·생생지리(生生之理)로써 보편타당한 법칙의 편재를 주장하였다. 인간은 우주의 보편타당한 법칙(天理)을 부여받았다고 보아 인간성(性)을 본질적으로 신뢰하였다. 보편타당한 법칙을 온전히 익히기(體認·體得) 위한 방법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공부론을 제시한다. 즉 사사물물(事事物物)에 깃들어 있는 이치(理)를 궁구하여 인간의 앎을 확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2024 수특 p.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성리학(性理學))

2024 인예2	조선의 주자학	☆☆
정제두는 인간 사회의 운영 원리와 자연법칙을 각각 생이지지(生而知之: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아 앎.)라는 선천적 지식과 학이지지(學而知之: 배워서 앎.)라는 후천적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이익은 자연을 인간사회와 관계없이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운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정약용은 우주 만물의 동일성을 부정하고 자연세계와 인간 사회를 분리하여 인간사회와 관련된 모든 기호와 상징은 인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자연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간학과 자연학을 구분하였다.		
정제두: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의 구분 이익: 자연은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운행함 정약용: 인간세계와 자연세계의 분리		
1) 정제두의 사상 정제두는 왕수인의 심즉리를 받아들여 주자가 마음(心)과 이(理)를 구별하는 것을 비판하고 마음과 이의 일치를 주장하였으며, 이와 기(氣)의 이원화도 거부하고 이기합일론의 입장을 취하였다. 나아가 이가 마음과 일치되어 마음 밖에 이가 따로 존재할 수 없게 되기에 이가 공허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왕양명의 학설 중 제일의(第一義)라고 할 수 있는 '치량지설(致良知說)'의 '양'(良)이 '지'(知)에 대하여 주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치지'의 '지'(知)가 지식의 '지'(知)가 아니라 선천적 지혜 라고 했다. 그러므로 '양'(良)은 생래적으로 얻은 혜명(慧明)한 선천적 지성을 뜻한다고 했으며, '양지'가 있으므로 경험이 가능하고 지식을 지식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성현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흐르는 논리가 중요한 것이요, 논리보다도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양지가 더욱 귀하다고 했다.		
2) 이익의 사상 - 기존 성리학의 비판 이익은 주자에게로만 치우치는 폐풍에서 벗어나 수사학적(洙泗學的)인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의 부흥을 기하였다. 또한, 이이(李珥)와 유흥원(柳馨遠)의 학풍을 존송해, 당시의 사회실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무(世務)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재구(材具)의 준비가 있어야만 실학이라고 보았다. 사강·예론에 치우치거나 주자의 집전·장구에만 구애되는 풍조, 그리고 종래의 주자학적으로 경화된 신분관·직업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익은 종래 중국 중심의 화이관·성인관에서 탈피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시야를 지닐 수 있게끔 하였다. 정통적인 유학자이면서도 노불(老佛)의 학이나 새로 전래된 천주교와 같은 이른바 이단에 대해서도 윤리면에서 남다른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단잡설과 이기(理氣)의 논의도 당시 사회의 현실문제에 비추어서는 아무런 실익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그러한 의미에서 예학이나 이기설 같은 것이 당시에는 긴급하고 절실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익의 학문·사상은 내외적으로 당시 조선이 처한 사회현실로 보아 경제실용이라는 면에 중점이 두어졌다.		

3) 정약용의 사상 - 하늘과 '나'의 관계

정약용은 유교 전통에 따라 지고(至高)한 상제를 보좌하고 자연현상을 주관하는 천신(天神)과 지지(地示)의 존재를 인정한다. 따라서 그의 신관은 수많은 기능신을 인정하면서도 상제의 지고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다신론적인 일신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하늘의 뜻을 우레나 바람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는 천인상관설이나 미래를 점치는 예언적인 참위설(讖緯說) 등의 주술적인 담론을 부정한다. 그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윤리적 욕구로서 내재하는 천명(天命), 곧 본성을 매개로 하늘과 사람을 연결한다. 그리고 이러한 천명, 곧 본성은 단지 선천적으로 부여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시시각각 계속 이어진다." 다시 말해 '하늘—나' 사이의 단독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명령이 지속적으로 내려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약용의 천명은 나의 내면에 자기 완결적인 형태로 주어지는 일회적인 본질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형되는 욕구인 것이다.

4) 정약용의 사상 - 토지개혁론

정전제: 중국 고대의 토지제도로, 조선 국토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

균전제: 토지와 인구를 표준으로 삼음, 비목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

여전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얻는 것, 공동생산을 기반으로 하되,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것,

정전제: 국가에서 재정을 마련하여, 사유 농지를 매입하여 수확을 전세에 충당하는 것.

정약용의 토지개혁론은 상업적 이윤과 '자본주의적' 경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농민에게 토지를 갖게 하되 양반 및 상공 계층은 제외**하고 농업을 통한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실학자들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정약용이 제시한 여전제와 정전론은 유사점이 많다. 즉, 그는 자신의 개혁안에서 모두 토지의 사적 소유를 부정했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에게만 토지를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과, 전제개혁(田制改革)을 통해 병농일치제를 관철하고 지방제도와 병제의 일체화를 시도한 점도 비슷하다.

그러나 이 두 개혁안 사이에는 차이도 있었다. 즉, 정약용은 여전론을 통해서 여의 설치와 여민의 공동생산을 분명하게 논했다. 그러나 정전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전의 경우는 그 운영에 있어서 여전과 차이가 있었고, 농업의 전문화와 부농에 의한 개별 경영을 제안하였다.

정약용은 상업 및 수공업 분야에 관해서도 개혁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존중하던 원초 유학의 왕도정치론에서는 인정의 지표 가운데 하나로 상인과 장인(匠人)을 보호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선진시대와는 달리 상공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해 가던 단계였다.

2024 수특 p.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정재두(鄭齊斗)), (이익(李翼)), (정약용(丁若鏞))
정약용의 수완론 체계, 일부언

DAY 2

문장 읽기 연습

반사회적 사회성이란 한편으로는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끊임 없이 위협하고 반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를 이루어 살려는 인간의 성향을 말한다. (2004학년도 수능)

'텍스트'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모든 인공물을 이르는 용어이다. 쇼윈도는 '소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이다.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프레임(frame)은 영화와 사진 등의 시각 매체에서 화면 영역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틀을 말한다. 그런데 문, 창, 기둥, 거울 등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법을 '이중 프레임', 그리고 안에 있는 프레임을 '이차 프레임'이라 칭한다.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DAY 2

평가원 기출 학습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06

모든 사막은 뜨겁고 세찬 모래 폭풍이 불어대는 ㉠ 불모지일까? 사막 중에는 열대 사막도 있지만, 고지대나 대륙의 내부에 있는 사막과 같이 여름은 덥지만 겨울은 추운 온대 사막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막은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지역을 말하는데, 대부분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한다.

저위도의 사막은 북회귀선이나 남회귀선이 지나가는 곳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지구의 ㉡ 대기 대순환에 의해 반영구적인 고기압대가 형성되어 덥고 건조한 기후를 만들어낸다. 북회귀선에 위치한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과 같은 열대 사막은 이러한 요인으로 형성되었다.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미국 서부의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과 중국 서부의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 과정은 이와 다르다.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해양에서 유입되는 ㉢ 습윤한 공기의 수분 이동을 차단하여 형성되었다. 이는 수분을 함유한 공기가 높은 산맥을 넘어 반대쪽에 도달할 때 수분을 잃게 되어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타클라마칸 사막은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 해양과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건 때문에 형성되었다. 대륙 내부로의 이동 과정에서 생기는 공기 중의 수분 손실도 사막 형성의 한 원인인 것이다. 이와 같이 사막은 대기 대순환, 지형적 특성, 지리적 위치 등의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흥미로운 것은 타클라마칸 사막과 인접한 티베트 고원의 건조 지역에서 열대 습윤 환경에서 ㉣ 서식하던 신제3기*의 생물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한때는 저지대의 습윤한 지역이었으며, 지각 변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 가설을 세웠다. 기존의 지각 변동 이론에 따르면, 히말라야 산맥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 융기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티베트 고원에서 발견된 생물 화석은 이 이론에 잘 들어맞는 듯 보였다. 과학자들은 화석의 탄소 동위원소 분석뿐만 아니라 퇴적 지층에 대한 고지자기(古地磁氣)* 측정 결과를 통해, 이 지역이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과 함께 융기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티베트 고원에 인접한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는 근원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이라는 지각 변동이 관련되어 있다.

호주 대륙의 사막들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약 5천만 년 전 남극 대륙에서 분리된 호주 대륙은 지각 변동에 의해 북쪽으로 이동하여 남회귀선 부근의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 그 후 사막의 형성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신제3기: 신생대 제3기 후반.

* 고지자기: 과거 지구 자기장.

15. 밑줄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지각 변동은 일부 사막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② 타클라마칸 사막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온대 사막이다.
- ③ 시에라네바다 산맥은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 ④ 지구상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사막은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다.
- ⑤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 지형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16. [A]에서 사용된 ㉠의 검증 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 보장한다.
 ㄴ. 적용 가능한 새로운 현상을 찾아본다.
 ㄷ. 경쟁 가설보다 설명력이 있는지 비교한다.
 ㄹ. 기존 이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ㄴ, ㄹ

17. 밑줄로 미루어 볼 때, ㉡의 과정과 가장 관련이 깊은 요인은?

- ① 대기 대순환
- ② 대륙의 크기
- ③ 산맥의 높이
- ④ 해수의 온도
- ⑤ 해양과의 거리

18. ㉠~㉣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
- ② ㉡ : 천체의 표면을 둘러싼 기체.
- ③ ㉢ : 습기가 많은 느낌이 있음.
- ④ ㉣ : 길러서 번식하게 함.
- ⑤ ㉥ : 솟아올라 높아짐.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09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A]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를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28.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29.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작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 ② 청중 사이에서는 기쁨으로 인해 환호성이 일어났다.
- ③ 형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 ④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 ⑤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남으로써 발전한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9.06

【앞부분 줄거리】 웅고집은 성격이 고약한 부자이다. 어느 날 웅고집 앞에 가짜 웅고집이 나타나, 서로가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두 웅고집이 송사 가는 제, 읍내를 들어가니 짚옹고집 거동 보소. 주저 없이 제가 앞에 가며 읍의 촌자인 하나와 만나 보면 깜짝 반겨 두 손을 잡고, “나는 가변을 송사하러 가는지라.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에 서로 알아 죽마고우로 지냈으니 나를 몰라볼쏘냐.”

또 하나를 보면, “자네 내게서 아무 연분에 돈 오십 냇을 취하여 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잣돈 보태 쓰게 하라.”

또 하나 보면, “자네 쥐골뎡 눈 두 섬지기 이때까지 소작할 제, 거년 선자(先資)* 스물닷 말을 어찌 아니 보내는가.”

이처럼 하니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을 본즉 낱낱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기가 질려 뒤에 오며, 실성한 사람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짚옹고집같이도 모르는지라.

짚옹고집이 노변에서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하는 말이, “가운이 불길하여 어떠한 놈이 왔으되 용모 나와 비슷해 제가 내라 하고 자칭 웅고집이라 하기로, 억울한 분을 견디지 못하여 일체 구별로 송사하러 가는지라. 뒤에 오는 사람이 기네. 자네들도 대소간 눈이 있거든 혹 흑백을 가릴쏘냐.”

참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 울 제, 행인들이 이어 보고 하는 말이, “누가 알아보리요.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요.”

(중략)

짚옹고집 반만 웃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내정으로 들어가니 처자 권속이 내달아 잠고 들어가니,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형제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니 처자 권속이며 상하 노복 등이 참옹고집으로 알고, 마누라는, “㉠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못 아들 나서며,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채를 보았다.” 노복 중이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짚옹고집이, “내가 혈혈단신으로 자수성가하기로 전곡을 과연 아끼 줄만 알았더니 내빈 왕객 접대 상과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더니 인심부득 절로 되어 이런 재변이 난 듯싶으니, 사람 되고 개과천선 못할쏘냐. 오늘부터 재물과 곡식을 흠어 활인구제(活人救濟)하리라.”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단 말이 낭자하니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결승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오니 백 냇돈 천 냇돈을 흠어 주니 웅고집은 인심 중단 말이 낭자하더라.

하루는 주호를 낭자케 장만하고 원근에 모모한 친구며 사방 사람을 청좌하여 대연을 배설할 제, 이때의 참옹고집 전전걸식하다가 맹랑촌 웅고집 활인구제한단 말 듣고 분심으로 하는 말이,

“㉡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

인고. 찾아가서 내 집 망중 보고 죽자.”

하고 죽장망혜로 찾아갈 제, ㉢ 짚옹고집 도술 보고 근처에 참옹고집 온 줄 알고 사환을 분부하되,

“오늘 큰 잔치에 음식도 낭자하고 결인도 많을 제, 타일 천하게 다투던 거짓 웅가 놈이 배도 고프고 기한(飢寒)을 견디지 못하여 전전걸식 다닐 제, 잔치 소문을 듣고 마을 근처에 왔으나 차마 못 들어오는가 싶으니 너희 등은 가서 데려오라. 일변 생각하면 되도 못할 일 하다가 중장(重杖)만 맞았으니 불쌍하다.”

사환 등이 영을 듣고 사방으로 나가 보니 ㉣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거늘 사환들이 바로 가서 엉겁결에 배례하고 문안하니, 슬프다. 참옹고집이 대성통곡 절로 난다.

사환들이 가자 하니, “㉤ 갈 마음 전혀 없다.”

여러 놈이 부축하여 들어가서 좌상에 앉히니 짚옹고집 일어서며 인사 후에,

“네 들어라. 형제 있어 좋다 하는 것이 활인구제하여 만인적선이 으뜸이거늘 천여 석 거부로서 첫째로는 부모 박대하니 세상에 용납지 못할 놈이요, 둘째는 유결산승 욕보이니 불도가 어찌 허사리오. 우리 절 도승이 나를 보내어 묘하신 불법으로 가르쳐서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 세상에 영영 자취 없게 하여 세상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라 하시거늘 너를 다시 세상에 내어 보내기는 나의 어진 용심으로 살린 것이니, 이만해도 후생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듯싶으니 이후는 아무쪼록 개과하라.”

하고, 좌상에 나앉으며 문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벼 짚 묶음이라.

이로 좌상이 다 놀라 공고를 하고 웅고집이 이날부터 개과천선하여 세상에 전하여 일가친척이며 원근친고 사람에게 인심을 주장하니 웅고집의 인심을 만만세에 전하더라.

- 작자 미상, 「웅고집전」 -

* 선자: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드는 돈.

39.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사 원인이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음이 밝혀진다.
- ② 송사 결과에 대한 행인들의 상반된 예측이 제시된다.
- ③ 송사 가는 이의 답답한 심정이 서술자에 의해 드러난다.
- ④ 송사 가는 이들 간에 서로를 비방하는 대화가 이어진다.
- ⑤ 송사 가는 길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양이 묘사된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마누라’는 집에 돌아온 이를 ‘참옹고집’으로 알고 있다.
- ② ㉡: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③ ㉢: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있다.
- ④ ㉣: ‘참옹고집’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서러워하고 있다.
- ⑤ ㉤: ‘참옹고집’은 ‘사환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옹고집전」은 주인공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도록 그와 똑같이 생긴 ‘짚옹고집’을 등장시켜 그를 대신하게 하는 독특한 인물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참옹고집’으로 형상화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 ① ‘내 좋은 형제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상황이 ‘짚옹고집’을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던 ‘참옹고집’의 행적이 ‘짚옹고집’을 통해 언급됨을 알 수 있군.
- ③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야 하는 ‘참옹고집’의 책무가 ‘짚옹고집’을 통해 이행됨을 알 수 있군.
- ④ ‘짚옹고집’이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줄 수 있을 만큼 ‘참옹고집’의 재물이 많았다는 데에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을 연상시키는 ‘참옹고집’의 모습이 확인되는군.
- ⑤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전전걸식’하며 살아가는 데에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고통을 겪는 ‘참옹고집’의 처지가 확인되는군.

42. <보기>는 「옹고집전」 이본의 일부이다. [B]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참옹고집 듣기를 다하여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함장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千死)라도 무석(無惜)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나 명명하신 도덕하에 제발 덕분 살려 주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건지 하온 후 지하에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제발 덕분 살려 주옵소서.”

만단으로 애걸하니 도사 하는 말이, “천지간에 몸쓸 놈아. 인제도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볼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몸쓸 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情狀)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고로 놓아주니 돌아가 개과천선하라.”

부적을 써 주며 왈,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 있으리라.”

하고 홀연 간데없거늘 참옹고집 즐겨 돌아와서 제집 문전 다다르니 고무거각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 ①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나의 어진 용심’을, <보기>는 ‘정상이 불쌍’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용서하는 이의 마음을 고려했고, <보기>에서는 용서받는 이의 처지까지도 고려하였군.
- ②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이만해도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가 됨을, <보기>는 ‘너의 처자 가여’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징계의 사회적 효용이, <보기>에서는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가 고려되었군.
- ③ ‘참옹고집’의 악행으로 [B]는 ‘부모 박대’를, <보기>는 ‘모친’ ‘구박’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참옹고집’의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에 포함되었군.
- ④ ‘참옹고집’에게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이 [B]와 <보기> 모두 인물의 발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인물의 발화는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에 해당하는군.
- ⑤ ‘참옹고집’을 혼계하던 존재가 [B]에서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보기>에서는 ‘홀연’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신이한 사건이 벌어지는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06

(가)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머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별 날듯 하여라.

[A]

[B]

[C]

- 정지용, 「발열(發熱)」 -

*박나비: 흰체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주사(朱砂):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나)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쪼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D]

- 김영랑, 「거문고」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울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매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덩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굽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끊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E]

- 최승호, 「대설주의보」 -

13. (가)~(다)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 ②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 ③ (나), (다)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 ④ (가), (나),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14. 다음은 (가)를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 사항	·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다. · 낭송, 영상 및 음향 효과는 시의 내용과 표현에 따른다.
[A]	ㄱ. 카메라 시선을 위쪽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림. ㄴ.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
[B]	ㄷ.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영상과 가쁜 호흡의 음향 사용. ㄹ. 클로즈업 기법 활용. ㅁ. 5행과 10행은 영탄적 어조로 낭송.
[C]	ㅂ.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 옮겨 원경으로 담아 냄. ㅅ. 빛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영상 효과를 줌.

- 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 ② ㄷ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 ③ ㄹ로 ‘애’의 모습을 담으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겠군.
- ④ ㅁ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 ⑤ ㅂ, ㅅ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

15. <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나)와 (다)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 선생님 : 순수 서정 시인 김영랑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마음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를 쓸 수 없었어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거문고는 이런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대설주의보를 읽어보지요.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 ① (나)와 (다)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어.
- ② (나)와 (다)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
-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와 (다)의 ‘내리는’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 ④ (나)의 ‘기린’은 ‘노인’에게,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야.
- ⑤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술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

16. [D]와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D]와 [E]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 ② [D]와 [E]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준다.
- ③ [D]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 ④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 ⑤ [D]에는 화자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 [E]에는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

DAY 2

낮선 지문 학습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3LEET

벤야민은 폭력이 모든 합법적 권력의 탄생과 구성 과정에 개입함을, 그리고 그것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법 자체를 제정하고 부과하며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함을 밝히고자 했다. 『폭력 비판을 위하여』에서 그는 목적의 정의로움과 수단의 정당성에 대한 ㉠ 자연법론과 ㉡ 법실증주의의 입장 차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벤야민에 따르면, 고전적인 자연법론은 법 창출과 존속의 근거를 신이나 자연, 혹은 이성과 같은 형이상학적이고 외부적인 실체의 권위로부터 구한다. 또한 합당한 자격을 부여받은 외적 실체의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폭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법실증주의는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벤야민은 자연법론보다는 법실증주의가 폭력 비판의 가설적 토대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근본규범으로 전제된 헌법으로부터 법 효력의 근거를 도출하는 법실증주의는 법체계의 자기정초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법 제정 과정의 폭력을 읽어낼 단서를 제공해 주어, 폭력 보존의 계보에 대한 비판적 탐색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벤야민은 법실증주의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자연법론과 공유한다고 보았다. 정당화된 수단이 목적의 정당성을 보증한다고 보는 경우든 정당한 목적을 통해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든, 목적과 수단의 상호 지지적 관계를 전제로 폭력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그러나 법의 관심은 이러저러한 목적 혹은 수단을 평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폭력 자체를 수호하는 데 있다고 파악했다. 또한 법이 스스로 저지르는 폭력만을 정당한 ‘강제력’으로 상정하고 다른 모든 형태의 폭력적인 것들은 ‘폭력’으로 치부하는 문제에 관해 양편 모두 충분한 관심을 두지 않아 왔음을 지적했다.

벤야민은 자연법과 법실증주의가 감추어 온 법의 내재적 폭력성을 설명하기 위해 법정립적 폭력과 법보존적 폭력을 새롭게 개념화했다. 전자의 사례로 무정부적 위력이나 전쟁 등을, 후자의 사례로 행정제도와 경찰제도 등을 제시한 점에서 이들이 각각 근대 국가의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에 대응하는 한정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정립적 폭력은 법 목적을 위한 강제력이 정당화된 폭력의 위치를 독점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여기서 폭력은 법 제정의 수단으로 복무하지만, 목적인 바가 법으로 정립되는 순간 퇴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구적 성격을 넘어서 힘 자체가 된다. 그렇기에 법과 폭력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 또는 선후관계로 편입될 수 없다. 한편 법보존적 폭력은 이미 만들어진 법을 확인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로써 법의 규율 대상에 대한 구속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반복적이고 제도화된 노력들이다. 법은 구속적인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보존되며, 그 보존을 통한 재확언이 다시금 법을 구속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법 정립과 법 보존의 이러한 순환 회로를 신화적 폭력이라 명명하면서 그것을 신적 폭력과 구별 짓는다. 신적 폭력은 법을 허물어뜨리는 순수하고 직접적인 폭력이다. 벤야민은 이것이 신화적 폭력의 순환 회로를 폭파하고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게끔 하는 적극적 동력임을 주장한다.

출간 당시엔 크게 주목받지 못한 『폭력 비판을 위하여』가 반세기 넘게 지나 법과 폭력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데에는 데리다의 비판적 독해가 주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데리다는 『법의 힘』에서 합법화된 폭력을 소급적으로 정립하는 법의 발화수반적 힘을 분석했다. 그는 법 언어 행위를 통해 적법한 권력과 부정의한 폭력 사이의 경계가 비로소 그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보존적 폭력은 법정립적 폭력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정립은 자기보존적인 반복에 대한 요구를 내포하며, 자신이 정립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재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는 법을 정립하고 보존하는 신화적 폭력과 법을 허물어뜨리는 신적 폭력이 뚜렷이 구분될 수 없으며, 만일 후자를 벤야민이 지지했던 방식으로 이해할 경우 자칫 메시아주의*로 귀결되거나 전체주의에 복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 메시아주의: 세상이 사탄의 힘으로 지배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사탄을 물리칠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신앙.

2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벤야민은 법정립적 폭력을 신화적 폭력에, 법보존적 폭력을 신적 폭력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② 벤야민은 신적 폭력이 도래함으로써 법 정립과 법 보존의 순환 회로가 더 강고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 ③ 벤야민은 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폭력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 힘을 상실하여 소거된다고 주장한다.
- ④ 데리다는 폭력의 적법성이 법 언어 행위를 통해 사후적으로 정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⑤ 데리다는 법을 보존하기 위한 반복적이고 제도화된 폭력들이 법정립적 폭력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과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정당성 판단의 준거가 될 법적 권위를 법 바깥에서 구한다.
- ② ㉡은 수단의 절차적 정당화 여부에 따라 법의 폭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과 ㉡은 목적이나 수단 중 어느 한쪽이 정당화되면 다른 쪽의 정당성도 보증된다고 전제한다.
- ④ ㉠보다 ㉡이 법의 정립과 보존 과정에 내재된 폭력을 발견하는 데 더 유용하다.
- ⑤ ㉠과 달리 ㉡은 법적으로 승인된 폭력이 자신을 법 바깥의 폭력들과 차등화하는 문제에 주목한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 : 민주적 정치체제에서 법 제정 권력을 다룰 때, 논의 대상은 의회의 입법권으로 좁혀져야 한다. 정치적 자유의 행사를 통해 구성된 권력이 아닌 강제적 힘에 의해 정초된 법은 처음부터 불법이다. 따라서 국가법이 제정되고 유지되는 과정에 폭력이 난입할 여지는 없다.

B : 국가법은 불법체류자 등을 법적 보호로부터 배제하는 동시에 바로 그 배제를 통해 규율 대상으로 포획한다. 이때 법과 폭력은 안과 바깥이 구분되지 않는 '외비우스의 때' 안에서 무한히 순환한다. 우리는 더 나은, 혹은 덜 나쁜 법의 정립을 입법권의 자장 안에서 고민하기보다는 신화적 폭력을 넘어서 국가법 자체를 탈정립할 신적 폭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 ① A는 법 정립 과정에 폭력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본 데서, 벤야민과 관점을 같이한다.
- ② A는 적법한 강제력과 적법하지 않은 폭력이 처음부터 다른 기원을 가진다고 주장한 데서, 벤야민과는 견해를 달리하고 데리다와는 견해를 같이한다.
- ③ B는 법과 폭력의 순환 고리를 끊어낼 순수하고 직접적인 폭력을 지지한 데서, 벤야민과 입장을 같이한다.
- ④ B는 신적 폭력과 신화적 폭력의 구분을 전제한 데서, 벤야민과는 견해를 달리하고 데리다와는 견해를 같이한다.
- ⑤ A와 B는 모두 법 정립 권력을 입법 권력에만 한정 지은 데서, 벤야민과 입장을 같이한다.

DAY 2

EBS 독서 배경지식 정리

<실제 숙제장에서는 추가 자료로 제공됩니다. Day 1은 예시를 보여
드린 것입니다.>